

# 생활 속 · 현장중심 규제개혁 추진

### 도, 불편규제 도민 공모 2~3월 추진, 지역현장 · 신산업 규제개혁과제 발굴 개선

전북도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민생과 밀접한 생활 속 규제 불편사항을 발굴·개선하고 지역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생활 속 불편규제 도민 공모를 실시하고, 시·군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기업, 소상공인 등이 느끼는 지역현장 규제에 대해 행자부 중안공모에 참여할 계획이며, 중앙공모 선정작을 제외하고, 부처에서 수용되는 과제 위주로 도에서도 도지사 상과

시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소기업 현장 애로, 도민이 생활하면서 체감하는 작지만 의미 있는 규제를 도민이 직접 제안하는 도민 참여형 규제개혁으로 전북도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행자부와 전국 17개 시·도가 합동으로 공모를 추진하며, 공모 이후에도 규제신고센터 등을 활용해 생활 속 불편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지역현장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기존 산업시설로 이용했으나 낙후된 지역, 유휴부지 규제, 구도심, 산업단지 규제 등을 발굴·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하며, 정부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정책

관련 제도가 신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례 등을 발굴·개선해 신산업·신성장 분야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군·유관기관 협업으로 규제개혁과제 발굴 보고회, 규제에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지역현장 위주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 행자부 등 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국도심·행자부·관련부처와 협업해 과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도 및 시·군의 자치법규에 있는 규제를 전수조사해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 개선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사전컨설팅 감사 활성화 및 사례 위주의 규제개혁 교육, 우수 시·군 및

우수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시행 등을 통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울러, 하반기에는 우수사례 보고회, 규제개혁 우수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규제개혁 성과를 공유·확산해 도민 체감도를 높이기로 했다.

최병관 기획관리실장은 "도민과 기업이 공감하는 규제개혁과제를 발굴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개혁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들께서도 불편하고 불필요한 규제들을 찾아 신고해 주고,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는 등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인재용 기자

#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확대 추진

### 마늘 · 양파 2월1일~3월3일 수박 · 고추 · 생강 5월 가을무 · 배추 9월 사업신청

전북도는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을 본격 확대·추진한다.

전북도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7월에 제정했고, 관련 '위원회' 구성·운영으로 사업추진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하반기 사업시행을 위해 가을무, 가을배추를 대상품목으로 우선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나 일부 시·군의 경우 대상품목 재배면적 및 농가가 적어 사업참여에 한계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전북도는 시·군별로 2개의 대상

품목을 선정해 도에 품목을 추천하면 도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

전북도는 지난 12월에 시·군별로 대상품목을 추천받은 결과 공통품목은 가을배추, 건고추, 양파 등 총 7개 품목으로 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운영심의위원회'에서는 품목 재배면적, 수확 농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의결을 추진하게 됐다.

또한, 지난해 기 파종(정식)된 마늘, 양파의 사업 추진을 위해 2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 읍면동사무소 및 지역농협 등에서 사업신청(접수)을 추진할 계획으로 많은 농업인의 사업참여를 당부했다.

상반기 파종품목인 수박, 고추, 생강은 5월, 가을무, 배추는 9월에 사업신청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재용 기자

# 도 '한우 기능성 포장재' 개발

### 유통기한 35일로 연장 · 비용 14% 절감 · 소포장 개발

전북도가 축산물 기능성 포장재를 개발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축산물 유통의 안전성 확보와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소비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하기 위해 한우부품 '축산물 기능성 포장재' 개발을 완료해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우고기 상당량은 선물세트에 판매되고 있으며 유통은 주로 택배에 의존하고 있고 배달과정에서 온도관리 미흡이 발생하고, 김영란법 시행으로 소비가 감소하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했다.

이번 개발된 기능성 포장재는 스티로폼 포장용기로 용기의 강도를 높이고 내용물의 유통으로 용기가 파손되지 않도록 안전성을 강화했다.

기존 포장용기보다 강도를 40%가량 높이고 용기 내부에 안전판을 설치해 아이스 팩 등 내용물이 움직이지 않도록 해 용기가 파손되는 것을 최소화했다.

또한 보냉 유지 시간을 늘리고 향균

포장재를 적용, 유통기한을 연장해 제품의 부가가치를 향상시켰다.

외부온도 30°C에서 용기 내부온도 5°C이하로 유지하는 시간을 기존용기보다 40%~1,000% 향상된 22시간으로 늘렸으며, 향균포장재를 사용할 경우 냉장소고기 유통기한을 기존 20일에서 35일로 연장할 수 있다.

또 포장용기의 두께를 규격화·최적화함으로써 포장비용을 절감했다.

기존은 용기 안에 축산물과 아이스 팩을 넣고 외부를 보냉가방으로 포장했으나 개선된 용기는 보냉가방을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존 포장 방법보다 약 14%정도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

또한 김영란법 시행 등 변화된 소비환경에 대응해 소용량 포장용기 개발 및 포장을 차별화했다.

김영란법 시행, 독신가구 증가 등 점차 변화하고 있는 소비환경에 맞추어 소용량 포장용기 3종을 제작했으며, 향후 용기 디자인, 제품 구성, 포장 기술 등의 차별화로 매출증대를 꾀한다. /인재용 기자

# 도내 군부대 지휘관 초청 전북관광 홍보 간담회 개최

전북도는 23일 도내 군부대 지휘관들을 초청해 전북관광 홍보 간담회를 개최했다.

행정부지사 주재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육군 35보병사단 참모장 및 육군부사관 학교장, 제7공수여단장 등 도내 군부대 지휘관들이 대거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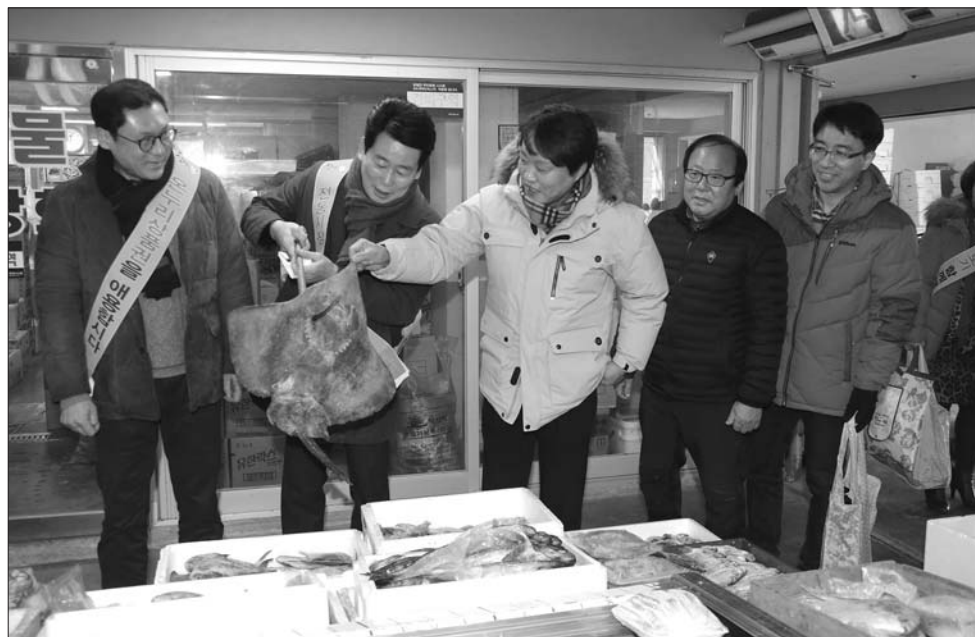
이번 간담회는 도 안보지문관의 아이디어로 도내 근무하는 장병과 장병 가족에게 전북투어패스를 홍보하고 2017년 전북 방문의 해 주요사업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도는 근무중인 장교와 사병들이 휴가나 외출시에 가족과 함께 전북을 돌아보며 지친 심신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전북도 관광매력을 설명했다.

또한 전북투어패스 구매 시 저렴한 가격으로 60여개 관광시설 무료입장, 30여개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시내버스 무료승차, 1,000여개의 특별할인가맹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부대에서 단체로 구매하면 투어패스 판매가격에서 20% 할인을 받을 수 있어 더욱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설명했다.

김일재 행정부지사는 "전북투어패스와 2017년 전북방문의 해 추진으로 우리 지역 관광시장이 성장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군부대 관계자들이 투어패스카드 구입 및 홍보협조에 적극적으로 구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전북도의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익산남부시장에서 '장보기 및 전통시장 이용하기 캠페인'을 펼쳤다.

# 전북도의회,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 펼쳐 익산남부시장에서

전북도의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대형마트나 SSM입점, AI 발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익산남부시장에서 '장보기 및 전통시장 이용하기 캠페인'을 펼쳤다.

황현 의장은 "작년 여름 무더위 등으로 채소류의 작황이 부진한데다 가격이 폭등하고 동절기 추운날씨에 경기불황까지 겹치다보니 전통시장 상

인들의 어려움이 크다"며 "도민들께서 설 제수용품 준비할 때 저렴한 전통시장에서 구입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통시장 이용을 당부했다.

황 의장은 또한 성애모지원을 찾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온정의 손길과 더불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인들의 어려움이 크다"며 "도민들께서 설 제수용품 준비할 때 저렴한 전통시장에서 구입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통시장 이용을 당부했다.

황 의장은 또한 성애모지원을 찾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온정의 손길과 더불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 도, 설 명절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합동단속

전북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20일까지 시·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 및 명예감시원 40명과 합동으로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합동단속반은 명태, 조기, 병어, 문어, 오징어, 가오리 등을 주 단속대상으로 점검하고 수산물을 취급하는 대형매장, 음식점 등도 단속했다. /인재용 기자

특히 방사능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은 일본산 수산물은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중이다.

또한 원산지표시 폄탈, 거래내역서 등을 확인하고 필요시에는 수산물품질관리원 유전자 시료 검사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다. /인재용 기자

정읍시 공고 제2017-94호

## 정읍 소성식품특화농공단지 지정계획(변경)(안) 열람공고

정읍시 고시 제2013-87(2013.11.29.)호로 지정된 정읍 소성식품특화농공단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지정계획(변경)(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명 칭 : 정읍 소성식품특화농공단지 지정계획(변경)(안)
  - 위 치 : 정읍시 소성면 신천리 23번지 일원
  - 면 적 : 232,000㎡
  - 사업시행자 : 정읍시
2. 주민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공람기간 : 2017년 01월 24일 ~ 2017년 02월 13일
  - 공람장소 : 정읍시청 첨단과학산업과, 소성면사무소
  - 내 용 : 배수시설 추가 변경
3. 기타사항
  - 이해관계인의 개별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하며 의견 제출기간 경과 후에도 계속 열람 하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첨단과학산업과(☎ 063-539-5672), 소성면사무소(☎ 063-539-72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1. 19. 정읍시장

##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http://www.jjmaeil.com)